

NOW

일본

산업리포트

**일본의 대(對)중동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및 전망**

일본의 대(對)중동 경제관계와 진출전략 및 전망

□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Middle East&North Africa)의 경기는 지역 내외의 불투명한 역학 관계에 영향을 받기 쉬움.

- 세계은행(IBRD)이 10월 5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동 및 북아프리카 지역의 전년 동기 대비 실질 GDP 성장률은 2021년 3.4%, 2022년 6.0%에서 2023년에는 1.9%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2024년에는 3.5%로 다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주요 경제국인 걸프협력회의(GCC: 카타르, UAE,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오만) 가맹국에 한정하면, 2021년에 3.2%, 2022년에 7.3%, 2023년에 1.0%, 2024년에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
- 일본과 밀접한 관계의 사우디아라비아는 2022년에 8.7% 성장률을 기록했으나 2023년에 ▲0.9%로 역성장한 후, 2024년에는 다시 4.1% 성장할 것으로 예측됨.
- 이러한 경제성장률은 코로나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의한 국제 원자재 가격의 상승, 이스라엘-하마스 충돌의 장기화, 지역내 국가 간 대립과 화해 등 불투명한 역학 관계의 변화에 따라 향후 유동적인 상황

□ 석유·천연가스 등 화석연료의 세계적 수요가 지속될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중동 국가들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는 증가하고 관련 비즈니스 기회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 국제에너지기구(IEA)가 10월 24일 발표한 2023 세계에너지 전망(World Energy Outlook 2023)에 따르면 중동의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량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중동지역(바레인, 이란, 이라크, 요르단, 쿠웨이트, 레바논,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시리나, UAE, 예멘 등 12개국)의 2050년 석유 생산량은 2022년 대비 26% 증가, 천연가스는 2022년 대비 54%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 2050년까지 중동지역의 연간 CO2 배출량은 2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파리협정 하에서 UAE와 오만은 2050년까지, 사우디아라비아, 베레인 및 쿠웨이트는 2060년까지 CO2 배출량 제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상황임.

- 세계적인 탈(脫)탄소화와 신재생에너지 확대 움직임 속에서 중동 국가들은 화석 연료의 수요 감소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발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동지역의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2022년에 45 테라와트시(TWh)에서 2050년에는 23배인 1,041TWh로 늘어나고, 같은 기간 태양광발전은 17TWh에서 36배인 6,437TWh로, 풍력발전은 4TWh에서 60배인 232TWh로 늘어남.
 - 2022년 기준 중동지역에서 사용되는 에너지원 중에서 석유 및 천연가스 비율은 94%에 달하는데, 2050년까지 중동지역의 그린에너지 투자액은 현재의 4배인 900억 불까지 증가하고, 석유 및 천연가스 비율은 60%로 감소
 - 2016년 4월 발표된 “사우디아라비아 비전 2030” 에서도 화석연료 수출에 의존한 기존 경제구조의 개혁을 강조
 - 특히 해수담수화플랜트가 주목받고 있는데 전 세계 해수담수플랜트의 약 50%가 중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 해수를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한편, 물을 전기분해하여 생성되는 그린 수소를 생산해서 해외에 수출하고 있는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이 분야를 선도하고 있음.
- 중동국가들에게 있어 신(新)에너지 산업은 관련 기술력을 보유한 유럽, 미국, 중국, 일본, 한국 등과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함.
 - 일본은 정부 차원에서 안정적인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중동지역에서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과 관련한 협력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표명해 왔음.
 - 일본 종합상사와 인프라 관련 기업들(전력 및 가스)은 기존의 화석연료 확보 및 대형 플랜트 수출에 더해 신에너지 분야를 적극 개척 중
 - 중동에 진출한 일본기업 224개 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JETRO의 앙케이트 조사에 의하면, 향후 중동지역에서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 1위가 자원 및 에너지 관련임.

□ 일본은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협력의 기본 틀을 구축함.

- 일본은 중동에 대해 지정학적 안정화와 화석연료만이 아니라 탈(脫)탄소 분야의 협력 파트너로서는 물론 잠재력을 가진 신흥 성장 지역, 이노베이션과 신(新)비즈니스 실험장으로서의 역할(특히 이스라엘과 UAE)을 기대하고 있음.
- 중동은 일본에 대해 미국의 중동 이탈에 대비한 보완 관계의 구축(Look-East 정책), 석유·가스 자원 가치의 극대화, 석유 의존경제에서 탈피하는 새로운 성장모델로의 전환(산업 다각화, 거대프로젝트 계획, 스타트업 협력, 그린 에너지, 수소 등), 증대하는 국내 청년층에 대한 대응책(고용문제, 인프라, 엔터테인먼트 등) 등을 기대하고 있음.
- (일본-사우디아라비아) 2017년 3월 일본과 사우디아라비아는 “일본-사우디비전 2030(이하 비전)”에 합의하여 지금까지 관련 각료회의를 총 6차례 개최
 -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가 발표한 자국 개혁안인 “비전” 속에는 주로 일본이 사우디아라비아에 협력한다는 내용이 많이 포함됨.
 - “비전”은 무함마드 부(副) 황태자의 주도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 의존 경제에서 탈피하기 위해 산업의 다각화를 비롯한 새로운 성장전략의 구축, 고용 창출, 효율적인 행정을 목표로 한 개혁안
 - “비전”은 다양성, 혁신성, 소프트 가치라는 3개의 축을 협력기반으로 설정
 - 다양성은 폭넓고 강인한 산업 육성에 의한 지속적 성장, 혁신성은 기술 및 이노베이션 투자에 의한 경쟁력 강화, 소프트 가치는 사회 및 문화적 기반 강화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임.
 - 3개 축을 기반으로 양국의 정부 부처 및 기관이 참가하여 ①경쟁력 있는 산업 ②에너지 ③엔터테인먼트·미디어 ④건강·의료 ⑤농업·식료 ⑥질 높은 인프라 ⑦중소기업·능력개발 ⑧문화·스포츠·교육 ⑨투자·파이낸스의 총 9개 분야를 구체적인 협력의 중점 분야로 설정함.
 - “비전”의 특징은 ①9개 중점 협력 분야에서 57개 협력 프로젝트를 양국의 45개 부처와 기관이 추진하는 포괄적인 협정이라는 점, ②체결 시점에서 총 36개의 기업간 MOU가 체결되는 등 일본의 민간 경제계에서도 전면 지원하기로 한 점, ③1만 명이 넘는 인재를 육성하기로 하는 등 인재 형성에 대한 지원을 포함했다는 점, ④3개의 경제특구 후보지를 선정하는 등 양국 비즈니스를 촉진시키는 조치를 포함시켰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음.

- 2023년 7월 중동 3개국을 순방한 기시다 총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전” 이 제2막에 들어섰다고, 첨단분야, 의료·헬스케어,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협력을 더욱 강화할 방침을 발표
- (일본-UAE) 2018년 당시 아베 총리가 UAE를 순방한 자리에서 양국간 전략적 파트너십(CSPI: Comprehensive Strategic Partnership Initiative)을 맺음.
 - 2022년 기준 일본은 원유수입량의 37%를 UAE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UAE에게 있어서도 일본은 최대 원유수출국임.
 - 높은 임금 수준으로 세계 각국에서 첨단분야 기술을 보유한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온 UAE는 그린에너지, 우주산업 등 첨단분야에서 일본과의 이노베이션 협력을 기대하고 있음.
 - CSPI는 각료급인 협력위원회 하에 정치·외교·국제관계, 경제·무역·에너지·산업, 농업·환경·기후변동, 교육·과학기술·문화, 방위 및 안보의 5개 소위원회를 설치하여 광범위한 양국 협력 관계를 강화
- (일본-이스라엘) 2017년 양국 경제담당 장관은 상호 방문한 자리에서 정부 주도로 일본-이스라엘 이노베이션 네트워크(JIIN: Japan Israel Innovation Network)를 설립
 - 이스라엘은 중동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만큼 이노베이션 강국으로써 벤처 생태계가 탄탄하게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GAFAM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기업과 유럽 및 한중일의 대기업 R&D센터가 다수 진출해 있음.
 -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4차례 JIIN총회가 개최되었고, 총회를 전후로 정부 간 경제이노베이션 정책대화가 개최됨.

□ 일본의 대(對)중동 무역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광물성 연료와 자동차 비중이 높고, 이스라엘 및 튀르키예는 산업재와 소비재의 비중이 높음.

-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21년의 무역량이 전체적으로 줄었으나, 2022년부터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러나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충돌 이후 일본기업의 중동지역 진출과 투자에 리스크가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많음.
- 무역액과 진출 기업수에서 일본과 가장 관계가 깊은 국가는 UAE지만, 투자액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튀르키예가 앞서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대일수출은 원유(96.7%), 대일수입은 자동차(67.7%)가 중심
- UAE의 대일수출은 원유(96.0%), 대일수입은 자동차(41.1%)가 중심
- 이스라엘의 대일수출은 전기기구(34.2%), 대일수입은 자동차(50.1%)가 중심
- 튀르키예의 대일수출은 식료품(41.7%), 대일수입은 기계(28.3%)가 중심

<표1> 중동 주요국과 일본의 주요 경제관계 현황

사우디아라비아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4,112	33,756	▼29,644	449억엔
2019	5,111	27,625	▼22,514	▼992억엔
2020	4,229	18,385	▼14,156	▼357억엔
2021	4,473	27,480	▼23,007	195억엔
2022	5,077	42,448	▼37,371	630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주요 수출품(2022): 운송용기구(67.7%), 원료별 제품(12.0%), 일반기계(11.9%)

*주요 수입품(2022): 광물성연료(96.7%), 화학제품(1.3%), 원료별제품(1.1%)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110, 재류일본인: 622명

*양국간 경제기술협력협정(1975), 항공협정(2009), 조세조약(2011), 투자협정 주요협정 (2013), 일-사우디비전2030(2017)

UAE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7,902	27,528	▼19,626	444억엔
2019	7,186	26,201	▼19,015	81억엔
2020	5,544	16,306	▼10,762	▼209억엔
2021	7,044	27,045	▼20,001	13억엔
2022	8,492	45,589	▼37,097	254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주요 수출품(2022): 운송용기구(41.1%), 일반기계(16.2%), 원료별제품(11.4%)

*주요 수입품(2022): 광물성연료(96.0%), 원료별제품(2.9%)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346, 재류일본인: 4,370명

*양국간 항공협정(1998), 국제운송업소득면제합의(2004), 원자력협정(2014), 주요협정 조세조약(2014), 투자협정(2020), 방위품 및 기술이전협정(2023)

이스라엘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2,163	1,400	763	45억엔
2019	1,667	1,217	450	9억엔
2020	1,512	1,231	281	27억엔
2021	1,727	1,298	429	66억엔
2022	1,485	1,280	205	▼206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주요 수출품(2022): 운송용기구(50.1%), 일반기계(13.1%), 화학제품(8.8%)

*주요 수입품(2022): 전기기구(34.2%), 화학제품(17.6%), 과학광학기구(15.1%)

*진출 일본기업(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87, 재류일본인: 1,253명

*양국간 조세조약(1993), 과학기술협력협정(1995), 항공협정(2000), 투자협정
주요협정 (2017)

튀르키예

년	일본 수출(A)	일본 수입(B)	무역수지(A-B)	일본기업 투자액
2018	3,198	756	2,442	371억엔
2019	2,515	767	1,748	668억엔
2020	2,663	689	1,974	411억엔
2021	3,189	811	2,378	702억엔
2022	3,233	1,032	2,201	592억엔

(주)무역(백만달러):재무성 통관 기준. 투자액(억엔):일본은행 Net flow기준

*주요 수출품(2022): 일반기계(28.3%), 원료별제품(20.3%), 운동용기구(18.8%)

*주요 수입품(2022): 식료품(41.7%), 원료별제품(13.4%), 의류-부속품(12.1%)

*진출 일본기업수(거점)(2022년, 외무성 통계): 275, 재류일본인:1,765명

*양국간 비자면제합의(1957), 항공협정(1989), 투자보호협정(1992), 조세협정
주요협정 (1993), 원자력협정(2013), 기술협력협정(2020)

출처: JETRO 자료를 참고로 필자가 작성.

□ 중동에 진출한 일본기업들은 중동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에 주목하고 있으나, 국가별로 매력과 과제는 다양한 상황임.

- 중동에 진출한 224개 일본기업을 대상으로 한 앙케이트 조사 결과를 보면, ①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의한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2022년 흑자기업 비율이 전년보다 감소했음. 그러나 ②향후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라는 기업이 전년보다 증가했는데, 이는 중동 시장의 성장성과 잠재력을 높게 평가하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뜻임. 다만, ③성장성과 잠재력에 비해 법제도의 미비와 같은 리스크 요인이 크고, 부동산 임대료와 인건비 급증 등이 투자의 매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음.
- 영업이익 흑자기업 비율은 코로나의 영향으로 2020년에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45.1%까지 감소했으나, 이후 반등하면서 2021년에는 65.2%까지 증가했고, 2022년에는 56.7%로 소폭 감소가 예상됨.
- 제조업 기업들은 79.6%가 흑자를 기록한 것에 반해 소비재를 중심으로 한 비제조업 기업들은 이보다 낮은 49.1%만이 흑자를 기록함.
- 2022년 기준, 흑자기업 비율이 높은 국가는 카타르(75.0%), UAE(70.6%), 튀르키예(59.4%) 순이며, 이스라엘과 이란은 흑자기업 비율이 각각 25.0%와 8.3%에 불과함. 이는 미국의 이란 제재와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쟁에 의한 영향 때문으로 판단됨.

〈표2〉 중동 진출 일본기업의 영업이익 추이

	2018	2019	2020	2021	2022
흑자기업비율(%)	55.4%	52.3%	45.1%	65.2%	56.7%
균형기업비율(%)	25.3%	32.9%	28.8%	20.5%	33.6%
적자기업비율(%)	19.3%	14.8%	26.2%	14.3%	9.7%

출처: JETRO(2022) 「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 / 中東編」를 기초로 필자 작성

- 한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중동에 진출한 일본기업의 68.2%가 영향이 있다고 답했는데, 튀르키예에 진출한 기업의 80%가 영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진출한 기업은 35.9%만이 영향이 있다고 대답

- 영향이 있다고 답한 기업들은 원자재 및 부품가격의 상승, 자원 조달 비용의 상승을 그 이유로 꼽음.
- 향후 사업에 관해서는 전체 기업의 48.7%가 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47.8%는 현상을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UAE와 이스라엘에서는 사업 확대를 계획하고 있는 기업 비율이 높고, 이란은 상대적으로 낮음.
- 사업 확대의 이유로는 높은 성장성 및 잠재력, 판로 확대·수출 증가·현지 시장의 구매력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를 꼽는 기업이 많았음.
- 국가별로 보면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스라엘에 진출한 기업은 높은 성장성 및 잠재력을 사업 확대의 이유로 꼽았고, UAE에 진출한 기업은 판로 확대·수출 증가·현지 시장의 구매력 증가에 의한 매출 증가를 이유로 꼽음.
- 중동에 기업 거점을 설치한 이유에 대해, 큰 시장 규모(72.8%)와 시장의 장래성(55.4%)을 꼽는 기업이 많았으나, 이스라엘의 경우 신기술 탐색 목적의 진출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난 점이 여타 중동 국가들과는 다른 점임.

<표3> 중동 시장 진출의 이유

(복수응답)	중동전체	UAE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이란	이스라엘
시장규모	72.8%	58.7%	74.4%	57.6%	53.8%	0.0%
시장의 장래성	55.4%	75.0%	61.5%	78.8%	92.3%	41.7%
거래처의 요청	20.5%	14.4%	25.6%	36.4%	30.8%	8.3%
수익성	16.5%	13.5%	17.9%	21.2%	23.1%	0.0%
천연자원	15.2%	11.5%	12.8%	3.0%	46.2%	8.3%
제조거점으로서의 우위성	15.2%	2.9%	12.8%	36.4%	0.0%	8.3%
기술탐색	9.4%	1.9%	2.6%	0.0%	0.0%	91.7%

출처: <표2>과 동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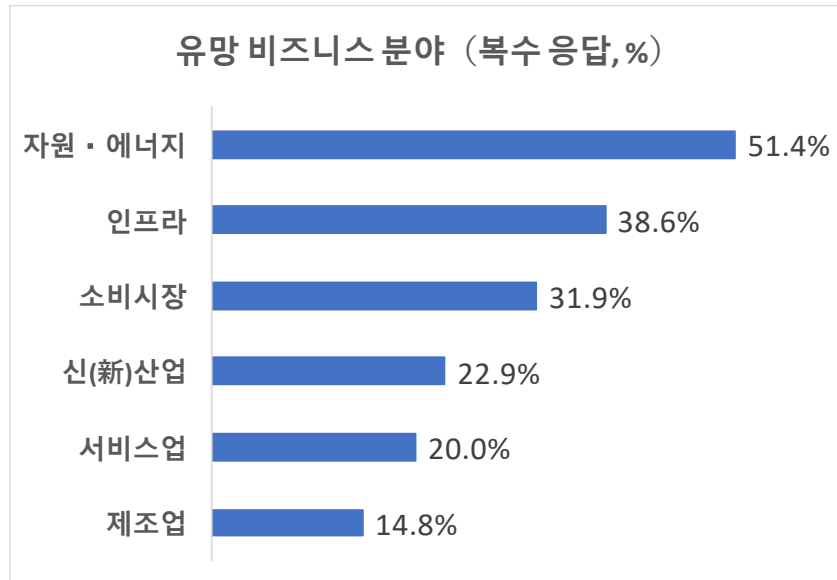
- 중동 투자의 매력으로 일본기업들은 시장규모와 성장성, 주재원의 생활환경, 양호한 대일(對日)감정, 상대적으로 낮은 언어 장벽, 경제특구 등의 인센티브, 충실한 인프라를 꼽음.

- 반면, 중동 투자의 과제로는 불투명하고 미비한 법제도, 돌발적인 제도 도입 및 변경, 부동산 임대료의 급등, 인건비의 급등, 불안정한 정치·사회 정세, 각종 수속의 지연이 지적됨.
 - UAE는 주재원의 생활 환경이 매력적인데 반해, 부동산 임대료 급등이 과제로 지적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시장규모 및 성장성이 매력적지만, 돌발적인 제도 도입 및 변경이 문제점으로 지적됨.
 - 튀르키예는 양호한 대일감정이 매력으로 꼽혔으나 불안정한 재정·금융·환율이 과제로 지적됨.
 - 이란은 시장규모 및 성장성이 매력적인데 비해 불안정한 재정·금융·환율이 과제로 지적됨.
 - 이스라엘은 양호한 대일감정이 장점이지만, 부동산 임대료의 급등이 지적됨.
- 중동지역에서 일본기업과 경쟁 관계에 있다고 생각되는 기업은 같은 일본계 기업(24.8%)과 유럽계 기업(23.5%)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중국계 기업(12.7%), 현지 기업(11.8%), 미국계 기업(9.0%), 인도계 기업(4.1%), 한국계 기업(2.3%)의 순

□ 향후 일본기업의 중동 진출 전략은 전력·수도·도시개발과 같은 인프라 관련 보다는 탈(脫)탄소화 흐름에 따른 신(新)자원·에너지 관련 그리고 소비시장 공략을 목적으로 한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지역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5년 전에 비해 현재 중동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37.3%, 변화없음은 50.7%, 낮아졌다고 응답한 기업은 7.8%임.
- 향후 5년 후 중동 시장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48.4%, 변화없음은 38.8%,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5.0%임.

<표4> 중동 시장의 향후 유망 비즈니스 분야



자원·에너지 세부 분야		인프라 세부 분야		소비시장 세부 분야	
수소	69.2%	전력	68.0%	식품	48.4%
연료암모니아	67.3%	수도	61.3%	운송기구(자동차·이륜차)	41.9%
태양광	54.8%	도시개발	44.0%	생활용품	32.3%
천연가스	47.1%	철도	33.3%	가전제품	19.4%

출처: <표2>과 동일

- 진출 분야는 자원·에너지 관련(51.4%)이 가장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로 언급되었으며, 그다음은 인프라 관련(38.6%)과 소비시장(31.9%)의 순(복수응답).
 - 구체적으로 자원·에너지 관련에서는 수소발전·연료 암모니아·태양광이 유망한 비즈니스 분야로 꼽혔으며, 소비시장에서는 식품·운송기구(자동차 및 이륜차)·생활용품이, 인프라 관련에서는 전력·수도·도시개발이 유망 비즈니스로 분야로 꼽혔음.
 - 일본의 중동 시장 진출 전략은 안정적 에너지원의 확보라는 목적하에 과거의 화석연료 중심에서 수소발전 등 신에너지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음.

- 또 한편으로는 식품을 중심으로 한 소비시장도 유망한 진출 분야로 평가되고 있는데 이는 젊은 인구 비중이 높은 중동에서 다양한 소비 수요의 증가라는 상황이 반영된 것임.
- 소비시장 진출 사례로 대형서점인 키노쿠니야서점(紀伊国屋書店)의 경우, 2008년 UAE 두바이에 점포를 개설한 것을 시작으로 2020년에는 아부다비점도 개설함.
- 키노쿠니야서점에서는 서적(영어판, 아랍어판, 일본어판)뿐만 아니라 문방구와 완구 등 잡화까지 취급하고 있는데, 코로나의 영향을 받기는 했지만 망가와 애니메이션을 중심으로 한 일본 콘텐츠가 호평을 받으면서 관련 매장 면적을 확대 중에 있음.
- 향후 주목해야 할 중동 국가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꼽은 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그 이유는 큰 시장 규모와 성장성(사우디아라비아), 탈(脫)탄소화에 의한 신에너지 분야의 성장(사우디아라비아, UAE)을 들 수 있음.

□ 중동 진출 전략에서 한일 협력의 가능성

- 중동 진출 전략에 있어 한일 양국은 경쟁관계로 볼 수 있어 협력 분야의 모색은 용이하지 않은 상황임.
- 그러나 중국의 중동 진출이 유럽과 미국보다 빠르게 확대되고 있어 현재는 한국과 일본의 규모를 능가하는 상황인데, 한국과 일본이 특정 분야에서 협력 프로젝트를 구축한다면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의 중국에 대한 열세를 만회할 가능성이 있고 이를 도모해 가야 할 필요가 있음.
- 구체적으로는 중동에서 성장산업으로 전망되는 신에너지 관련 분야, 높은 소득수준으로 무장한 중동의 젊은 소비층을 대상으로 한 소비시장 분야가 이에 해당함.

<참고문헌>

- 増野伊登「中東の脱炭素化をリードするUAEとサウジアラ비아一域内各国への事業展開も加速一」三井物産戦略研究所, 2021.2
- 上田悠紀子「中東経済の動向と日本企業の進出概要」経済産業省, 2021.3
- JETRO「2022年度海外進出日系企業実態調査/中東編」JETRO, 2022.12
- 平井裕秀「中東情勢と経済産業省の取組経済産業省顧問」経済産業省. 2023.8
- IBRD. Balance Act: Jobs and Wages in the Middle East and North Africa When Cries Hit. IBRD, 2023.10
- IEA. World Energy Outlook 2023. IEA, 2023.10